

살인적 폭염에 바뀐 건설현장… 공정·비용 관리 ‘고심’

골조·냉방설비 등 한낮 작업 줄이고 일정 재조정

작업 지연 따른 인건비·현장관리비 부담 속앓이

“공사 계획단계부터 지연비용 반영 기준 마련돼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역 건설현장의 작업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야의 작업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한 낮 작업을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작업자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현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공정 지연과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골조와 외부 마감, 냉방설비 시공, 도

장, 방수, 조정 등 야의 작업 비중이 높은 공종에서는 기온과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을 늦추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의 시스템에어컨 등 냉방설비 시공을 맡고 있는 A업체는 최근 한낮 작업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작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조정하고 있다.

업체를 운영 중인 한모씨(35)는 “한낮에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외부 작업을 줄이고 있다”며 “가능하면 오전 일찍 작업을 시작하거나 오후 늦게 작업하

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시간이 줄어들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며 “공정에 맞추기 위해 다른 날 작업량을 늘리거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에 따라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에서는 오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줄이거나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지자체들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기간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휴식과 수분 섭취 등을 당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작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공사기간과 비

용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현장 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 건설기계 임차료 등 일정 부분의 비용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준공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작업시간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으로 옮기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경우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 현장처럼 여러 공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 공정의 일정 조정이 다른 공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시공업체들의 공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제도적으로 폭염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 등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역시 폭염 등으로 공사가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중단이나 공정 지연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발주자와 시공사, 하도급업체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전문건설업체 등 중소 규모 업체들은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인건비와 현장 관리비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폭염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반영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을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보기보다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작업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폭염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공정 관리,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기상 상황에 맞춰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현장의 안전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 변화와 비용까지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시공사 간 협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광주은행, 위기 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성과

광주은행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인 ‘S.O.S(Save Our Small business) 프로젝트’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7월 말 기준 S.O.S 프로젝트를 통해 69건, 15억5100만

원 정상화를 돕는 ‘경영개선지원’과 연체가 발생했지만 재기 의지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회생지원보증’ 등 투트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협약 이후 지난달 말까지 경영개선지원 특별보증(41건) 10억9600만원, 회생지원보증(28건) 4억5500만원을 실행했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도 힘을 보탤다.

경영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보증 실행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10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두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8개 업체의 매출이 보증 실행 전보다 증가했다.

경영개선지원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의 평균 증가율은 약 18.9%, 회생지원



전남신보와 ‘S.O.S프로젝트’ 추진 15억5100만원 보증 지원업체 80% 매출 증가…경영 개선·회생 투트랙 지원

원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S.O.S 프로젝트’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놓였지만 기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전남지역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자금 지원과 경영컨설팅, 채무조정 등 맞춤형 재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3월 전남신보와 총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부실 징후가 있는 업체의 경

특히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신용도 하락과 연체, 다중채무 등으로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사업의지와 회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자금을 연계했다.

채무 감면이 가능한 업체에는 관련 절차를 함께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 자금과 연계해 지원 자금의 평균 적용금리를 약 2% 수준으로 낮추는 등

보증 업체는 약 17.3%로 나타났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번 S.O.S 프로젝트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이 선연적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자금 지원과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로 이어진 실효성 있는 포용금융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제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관광공사, 더현대서울서 ‘전남광주 미식’ 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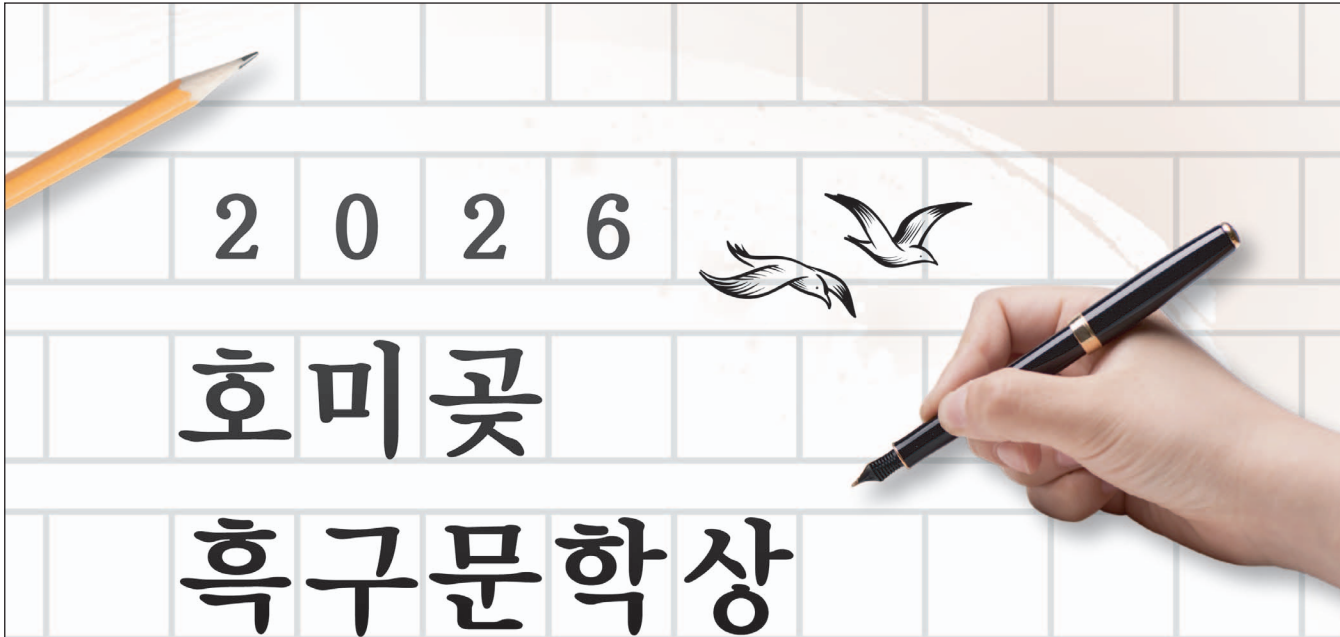
14일부터 ‘광주를 잇(EAT)다’

광주관광공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광주 대표 미식 브랜드를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 공략과 전국 단위 판로 확대에 나선다. 공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간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서울 식품행사장에서 전남광주미식을 주제로 한 팝업스토어 ‘광주를 잇(EAT)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브랜드의 오프라인 접점을 넓히고 전국 단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가 운영중인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주도로 마련됐다.

팝업스토어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미식 브랜드 4곳이 참여하며, 50년 전통의 베이커리 ‘궁전제과’와 지역 원재료로 프리미엄 K-스낵을 만드는 ‘느린먹거리 부각마을’, 명실상부 지역 대표 떡 브랜드 ‘창억떡’, 3대째 전통을 이어온 ‘형제송정떡갈비’ 등이 제품을 선보인다. 양동민 기자 yang00@



일시: 2026년 10월 17일 장소: 호미곶 해맞이광장 일원 및 국립릉대박물관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11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지역 혁신기업 대표를 초청해 선정확인서를 전달했다.

신안천사김·소프트웬스·옵토마린·명신메디칼·프락시스

광주세관 추천 5곳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신안천사김·㈜옵토마린 등 5개 유망 수출기업이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11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지역 혁신기업 대표를 초청해 선정확인서를 전달했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관계 부처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선정해 금융·비금융 지원을 펼치는 정책금융 지원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안천사김, ㈜소프트웬스, ㈜옵토마린, ㈜명신메디칼, ㈜프락시스 등 푸드테크·바이오헬스·광 모듈·제자원화 등 미래 성장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기업이다.

앞서 광주세관은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성과 혁신성을 분석해 이들 유망

중소·중견기업 5개사를 혁신기업 대상으로 추천했으며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세관은 이날 선정확인서 수여에 이어 수출 현황과 성장전략 등을 공유하고 FTA 활용과 해외규제 대응 등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강태일 광주세관장은 “모두의 수출” 정책 기조에 맞춰 누구나 글로벌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수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